8 월 3 일 2025 년

은혜와 사랑이 넘차는 교회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유영민 집사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참된 믿음 (약 2: 14-26) ..... 이진수 목사

결단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피: hkb.church

지난 주 설교 요약

“참된 자랑”(야고보서 1:9-12)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큰 집,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진 재물이 없으면 기가 죽어 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9-10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세상은 자신의 높아짐과 부한 것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모는지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은 영원한 것도, 또한 진정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 절에“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지만 성도는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소유한 집,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 주신 것임을 알기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종이 되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긍지로 여기는 자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것은 그 목소리로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폼 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장례예배** – 이양순 집사님 (한동윤 & 진화 할머님)
   장례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3.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전도회 성경공부** – 8 월 3 일 주일부터 예배 후
   전도회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5. **부장회** – 오늘 오후 1 시 부장회의 있습니다.
6. **새가족 환영회** – 8 월 9 일 토요일 오후 5:30 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7. **운영 위원회** – 운영위원회 모임 8 월 10 일
   주일 오후 1 시에 모입니다.

행사 및 모임

8 월	새가족 환영회	8 월 9 일 (토요일)
8 월	각 기관 월요회	8 월 31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03	8/10	8/17	8/24
대표기도	유 영민	손 정임	차 은희	심 영민
헌화성도	이 경숙	박 순자 조 정욱	성 미숙	심 영민
봉사당번	사랑구역	믿음구역	믿음구역	소망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 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 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 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 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 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 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담임 목사를 수용하는 성도가 되세요

목회자로서 원함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신앙과 인격, 리더십이 탁월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더 나아가 불편해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성도님들도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목회자를 대해 달라고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데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목회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쓰신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변호하기 위해 올리는 글 같지만 유익이 되는 글이라 믿기에 원문의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생략하고 올립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당을 소유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2-4 년마다 바뀝니다. 처음 담임 목회자가 부임했을 때는 잠시 좋아하다가 얼마 후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압박감을 주어서 목회자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 교회 교인들의 담임목사에 대한 기대치는 대단합니다. 능력은 조용기 목사님 같고, 인격은 한경직 목사님 같고,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처럼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담임목사로 오셔도 "학벌이 시원치 않다. 세속적이다. 강단에서 교인을 깐다"라고 트집을 잡아 쫓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몰라서 이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완벽한 목회자가 있다면 왜 이런 좋은 분이 이런 시골, 이런 작은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오시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행정력이 약하고, 친화력이 좋으면 추진력이 약하고, 박력이 있으면 고집이 세고 .... 모든 목사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완전한 담임 목사님을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님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 교회가 분열되고 담임 목사님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어야합니다. 완전한 목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담임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의 기대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기대와 취향은 다양할 뿐 아니라 서로 상치되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많은 교인들 비위를 맞출 수는 없는 일이고 교인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족하게 느껴지는 목사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 교인 자신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마음이 없는 삶을 존경하려 할 때에 겸손해지고, 관대해지고, 인내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불완전한 70 점짜리 목사라도 교인들이 장점과 강점을 키워주면 80 점, 90 점짜리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과 약점을 꼬집고 헐뜯으면 60 점짜리 50 점짜리 목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Sunday Main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본당 *Main Sactuary*
어린이예배 *Sunday Children's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유치부실 *Children's Room*
영어예배 *Sunday English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영어부예배실 *English Service Room*
주일성경공부 *Sunday School*	주일오후 12 시 *12:00 P.M.*	유년부실 *Group Class R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Meeting*	매일 화-토 6 시 *DailyT-Sat 6 a.m.*	본당 *Main Sactuary*
구역모임 *Local House Meeting*	매 월 *Monthly*	구역별 각가정 *Local church member's home*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 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Children's Ministry: Joy Song*	510-415-1696	Ejoysong@ 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